

5

야마토 황족의 근원

신찬성씨록의 내용을 보면 그 근원을
백제 왕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쯔노다(1958: 8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권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家系)의 중요성이, 고사기(서기 712년)에 의해 밝혀져 있다. 이렇듯 황족이 천손(天孫)임을 강조한 일본인의 생각은, 개인 예게가 아니라, 현인왕(賢人王)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마련된 왕조 자체에게, 하늘로부터 통치권이 위임되는 것이라는 중국(漢) 사람들 사고에 의해 확립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중요한 가문의 계보는 7세기 까지 심각한 혼돈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천평승보(天平勝寶, 서기 749-757년)시대 말기에 와서, 중요 가문의 출자(出自) 기록을 만들기 위해 몇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정부가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어, 이들 학자들은 해산되었다. 나중에 사가(嵯峨, 재위 809-823년) 재위 기간중에 그 작업이 재개되어, 서기 815년에 학자들이 신찬성씨록(新撰姓氏

錄)을 완성했는데, 그 속에는 수도와 주변 5개 구니(國)에 거주하는 1,182개의 주요 씨족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¹

신찬성씨록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쓰노다 번역, 1958: 86-88):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손(天孫)이 소(襲)땅에 내려와 서쪽으로 그 세력을 빼치기 시작하면서 신세(神世)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이 것에 대한 문서상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진무(神武)께서 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하시고 동정(東征)을 하자. . . 수많은 수장들이 항복을 하고, 반도들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 . . 공적에 따라 덕이 있는 자들에게 땅이 주어졌다. 씨족의 우두머리들(土命氏)에게 처음으로 “쿠니노 미야쓰코(國造),” “아가타 누시(縣主)”라는 칭호가 수여되었다. 스이닌(垂仁)은 언제나 새롭게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훌륭한 운명을 닦으셨다. . . 씨족과 성씨의 차이가 차츰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게다가 미마나(任那)가 우리의 영향 아래 들어오고(欽風), 신라가 공물을 바쳤다. [백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른 나라의 야만인들이 그의 덕에 경의를 표하여 모두 일본에 오고 싶어하게 되었다. 이들 외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성을 내려 주셨다(賜姓). . . . 그러나 인교오(允恭, 신라 왕실과 관련된 왕) 치세 때, 가문 관계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다. . . 고오교쿠(皇極)가 왕위에 계실 때, 지방의 기록이 모두 불타 버렸다. 그러다가 텐지(天智)가 태자로 계실 때, 후나(船史) 집안의 문서 보관 담당관인 에세키(惠尺)가, 타다 남아 그을은 기록을 조정에 바쳤다. 경오년(서기 670년)에 호적(戶籍)이 다시 편찬되고, 사람들의 씨족골족(人民氏骨) 관계가 명백해졌다. . . 천평승보(天平勝寶, 서기 749-57년) 시대에 조정의 특별한 배려로, 모든 외국인(諸蕃)에게 원하는 성씨가 주어졌다. 먼저 주어진 성(姓)과 후에 주어진 성이 모두 문자가 같기 때문에(遂使前姓後姓文字斯同), 어느 가문이 외국인(蕃俗)이고 어느 가문이 일본 토박이(和俗)인지 확실치 않게 되었

¹ 캐머론 허어스트 III (KEJ: 7, 124)에 의하면, 서기 799년 간무(桓武)의 명령으로 그의 아들 만다(萬多親王, 서기 783-830년)가 지도하는, 한 위원회에 의해 신찬성씨록의 편찬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다. 도처에서 서민들이 고귀한 집안의 자손인양 행세했으며. . . 삼한(三韓)에서 온 공경할 빈객(蕃賓)들은 일본신들의 후예(日本之神胤)라고 주장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니, 남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 . 빛나는 명성을 가지신 우리의 현 주상(嵯峨, 재위 809-823년)께서는, 중단된 곳으로부터 작업이 재개되기를 바라셨다. . . .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진무(神武)시대로부터 코오닌조(光仁朝, 서기 811-824년)에 이르기까지, 옛 것을 밝혀내고 새 것을 찾아 냈다. 1,182개 씨(氏)가 들어 있는 이 책은 30권으로 되어 있다. 책의 제목은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이다. . . . 인륜의 중추가 되는 기관(人倫之樞機)에 관한 것이므로, 이 책은, 국가가 의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¹⁾

신찬성씨록은 3부로 나뉘어진다. 제1부에는 천황·황자(天皇皇子)의 후손이라는 황족이 실려 있고, 제2부에는 천신지신(天神地祇)의 후예라는 신족(神族)이, 그리고 제3부에는 중국과 한국사람(大漢三韓之族)의 조상을 가졌다는 번족(蕃族)이 실려 있다⁽²⁾ 이 성씨록의 편찬자들은, 백제 왕족의 오오진(應神) 계통에서 나온 “황별(皇別)”과, 천신·지신에서 나온 “신별(神別)”,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중요한 가문에서 나온 “제번(諸蕃)”을, 뚜렷하게 구분 하려고 한것 같다. “황별”은 천황의 집안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원 조상이 천황이나 황자(皇子)인 씨족들을 지칭한다.

에가미(江上波夫, 1962)가 말하고 있듯이, 천신(天神)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씨족들은 오오진-야마토 시대가 시작될 무렵, 혹은 그 이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들의 후손을 말하는 것 같다. 반면 땅의 신(地祇)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씨족들은 순수한 토착 일본신들의 후손을 말하는 것 같다.² 신별로 분류된 403개 씨족가운

²일본 신화는 천신(아마쓰 가미, 天津神)과 토착신(쿠니쓰 가미, 國津神)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에가미(1962)는 “이른바 천신들은. . . 외국 정복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토착의 신들은 본래 일본에 있던 원주민의 수장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프노다, 등(1958: 86)은 약간 다른 문맥에

데 373개 씨족은 천신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30개 씨족만이 토착 땅의 신들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황벌은 대부분이 수도(京畿)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신벌”은 주로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밀러(1976)는, 텐무(天武)가 서기 684년에 “8계급” 세습 칭호(八色之姓)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최고의 성(姓)인 마히토(真人)는, 전적으로 그 기원을 오오진(應神), 케이타이(繼體, 재위 507-531년), 센카(宣化, 재위 535-539년), 비다쓰(敏達, 재위 572-585년), 요메이(用明, 재위 585-587년)로 더듬어 올라갈 수 있는 황족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한다.³ 일본서기(NII: 301)에 의하면 텐무(天武)는 “아마노 누나하라 오키노 마히토(天淳中原瀛真人)”라고 불렸다. 오오진(應神) 이전에 통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천황들의 친족이라는 황족들에게는, 8계급의 둘째 칭호 “아손(朝臣)”이 주어졌다.⁴ 오오진으로 부터 내려온 씨족의 가계(家系)는, 케이타이(繼體)가 선택된 오오진의 지손으로 더듬어 올라 갈수 있다.

밀러(1976)는, 성씨록이 지배씨족의 족보는 밝히지 않고 다만 그 선조의 이름만을 적어 놓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선조가 어떤 천황 혹은 어떤 신의 후손 이라든가, 혹은 또 어떠 어떠한 씨족과 조상이 같다른가 라는 것만을 기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씨록의 서문은, 마히토가 황벌중의 상씨(真人是皇別之上氏也)이므로, 수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 이런 신들은 하늘로 부터 황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 땅을 다스렸었다. . . ”

³8계급 칭호(八色之姓)는 마히토(真人), 아손(朝臣), 수쿠네(宿禰), 이미키(忌寸), 미치노시(道師), 오미(臣), 무라지(連), 이나기(稻置) 등이었다. 애스턴(NII: 365n)은, 네째 칭호 이미키(忌寸)는, 백제에서 온 이마키 아야(今來漢)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⁴KEJ(1:103)에 의하면 아손(朝臣) 칭호는 52개 씨족에 주어졌으나, 나중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저명한 씨족들에게 주어졌으며, 8세기 말에는 아손 칭호의 후지와라(藤原) 집안이 특세함으로써, 아손은 실질적으로 마히토(真人)의 위치를 대체하게 되었다.

도 지역의 마히토(真人) 씨족을 제1권에 수록했고, 황벌의 첫머리에 실었다”고 말하고 있다.²⁾

성씨록 제1권의 바로 첫머리에 실려 있는 첫 4개의 마히토 황족은, 호무다(譽田別, 應神)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5번째는 케이타이(繼體)의 후손, 그 다음의 7개 마히토 황족(즉 6번에서 12번까지)은 비다쓰(敏達)의 후손, 그리고 그 다음 8개 마히토 황족(즉 13번에서 20번까지)은 “백제 왕자의 후손들”로 기록되어 있다(百濟親王之後也). 그러나 12번째는, 다시 말하여 “백제 왕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씨족들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히토 황족은, 비다쓰의 후손일뿐 아니라 동시에 “백제왕”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敏達孫百濟王也). 바꾸어 말하면, “비다쓰의 후손”은 “백제왕의 자손”과 같다는 말이다.³⁾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NII: 1, 36, 90)에 의하면, 비다쓰는 케이타이(오호도)의 합법적인 후계자였던 긴메이(欽明)의 둘째 아들이었으며, 케이타이는 또 오오진(호무다 와케)의 5세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첫번째에서 20번째의 모든 마히토(真人) 황족들이 “백제왕의 자손들”이었다고 신찬성씨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NII: 33, 106, 157, 274, 301)에 의하면, 센카(宣化)는 케이타이(繼體)의 둘째 아들, 요오메이(用明)는 긴메이(欽明)의 넷째 아들, 조메이(舒明)는 비다쓰(敏達)의 손자, 텐지(天智)는 조메이의 맏아들, 텐무(天武)는 텐치의 동생이다. 21번째부터 44번째까지의 나머지 24개 마히토 황족은, 오오진, 케이타이, 비다쓰, 센카, 요메이, 조메이, 텐지, 텐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찬성씨록에 실려 있는 전체 44개 마히토 황족이, 모두 백제왕의 자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오오진(應神)계통의 일본 황족 전체가 백제 왕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들 가운데서 335개는 황벌(44개의 마히토 씨족들을 포함해서), 403개는 신벌, 328개는 제번(諸蕃), 116개는 기타 씨족(未定雜姓)으로 분류되어 있다.⁵⁾ 403개의

신별은, 373개의 천신(天神) 씨족과 30개의 땅의신(地祇)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에서 건너온 중요한 씨족으로 분류된 328개 가운데 158개는 백제, 42개는 고구려, 9개는 신라, 10개는 미마나(任那), 109개는 중국으로 부터 건너 온것으로 되어 있다.⁵ 제번(諸蕃) 그룹의 백제 씨족들은, 비왕족 계통뿐 아니라, 늦게, 특히 서기 663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일본에 건너 온 백제 왕족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야마토 왜의 지배 씨족들은, 오오진(應神) 계통의 백제왕족 후손인 335개 황족과, 오오진-야마토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의 후손을 나타내는지도 모르는 373개 천신(天神) 씨족과, 제번씨족 속에 포함되어 있는 158개 백제 씨족들, 그리고 한국의 그밖의 지역 [신라, 고구려, 가야]에서 건너온 61개 씨족들이다.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나머지 씨족은 255개인데, 이 가운데 30개는 땅의 신, 109개는 중국, 116개는 기타 미정잡성 계통인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미정잡성 속에도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출신이 각각 18, 7, 8, 1, 모두 해서 34개 씨족들이 포함되어 있다.⁶ 그러므로 우리는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들 가운데 한국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씨족은 222개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씨록에서 처음부터 백제에서 유래했다면서 제번으로 기록되어

⁵성씨록은 어찌 된 셈인지 신별 씨족수를 403개가 아니라 404개 라고 말하고 있고, 미정잡성의 씨족수를 116개가 아니라 117개 라고 말하고 있다.

⁶오오진 14, 15, 16, 20년에 각각(NI: 261-265) 백제에서 왜로 건너 온, 아직기(阿直岐, 阿知吉師), 왕인(王仁), 유즈키 기미(弓月君), 아치노 오미(阿知使主), 그리고 그의 아들 쓰가노 오미(都加使主)의 후손들과 같은 54개의 백제계통 씨족들을, 신찬성씨록은 중국에서 온 씨족들 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54개 씨족을, 성씨록에서 백제 계통의 제번 씨족이라고 분류한 104개 씨족에 추가시켰다.⁴⁾ 일본서기에 적혀 있는, 대륙에서 야마토 왜로의 사람들의 이동은, 중국으로 부터 건너온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에서, 그것도 대부분이 백제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도 성씨록은 일본서기가 분명히 백제로 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많은 수의 씨족들을 중국계로 분류 하므로서, 중국 계통 씨족의 수자를 과장시키려 했다.

있는 104개 씨족들은, 백제 “대왕(大王)”의 후손이 2개, 백제왕의 후손이 47개, 백제 사주(使主, 오미로 번역되어 있다)의 후손이 11개, 백제 오미(臣)의 후손이 6개, 백제 기미(君)의 후손이 5개, 평민 출신이 6개로 되어 있다.⁶⁾

성씨록은, 특히 마히토(真人)에 관한 첫 몇 페이지는, 야마토 왜(大和倭)의 통치자들이 백제인의 후예라는 우리의 명제를 명백하게 뒷바침해 주고 있다. 즉, 황족의 민족적 기원이 신찬성씨록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프노다(1958: 8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과 중국 이주민의 대량 유입은, [토착] 일본인들에게, . . . 하나의 도전이. . . 되었다. 왜냐 하면, 이주민들은 문명의 기술에 관한 지식이 [토착] 일본인들보다 분명히 우수했기 때문이다. [토착] 일본인 [씨족들]이 내세운 이점은, 그들이 [토착] 신의 후예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이 유산에 시샘하는 마음으로 매달렸다.” 라이샤워(1937: 19)에 의하면, “외국 씨족들은 섬 주민들보다 더 개화되어 있었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초기 일본의 원시사회가 새로 흘러 들어오는 혈액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들을 한단계 높은 형태의 문화에 적응 시키므로서, 급격히 변화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아오키(1974: 8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인의 귀족 혈통에 대한 숭배는, 한국 및 투르크 계통 몇몇 민족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앞서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왕들은 만주 [부여]의 귀족 출신들이었다. . . 사람의 출생에 따르는 사회적 층화(層化)라는 것은, 완고하고 절대 불가침적인 성격을 가졌었다.”⁷⁾

⁷⁾아오키는 계속한다. “만일 7세기초의 일본 개혁자들이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재편하기 원했다면, 그들의 정신 상태는 한국 지도자들의 정신 상태와 같은 것이었다. . . . 사실 관위십이계(官位十二階)제도는, 중국과 한국 전통의 기이한 혼합물이었다. . . 그것은 군주가, 새로 생긴 귀족 관료 집단에게 봉토(封土)를 내려 주고, 그들에게 공적에 따라 위계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 구성 요소의 세습 지위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일종의 봉급 지급 기준율과 같은 것이었다. . . 새 관위 계급

제도가, 왕족의 지위가 다른 귀족의 지위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중요한 일이다.”